

벼는 어떻게 재배할까요?

쌀이란 수확한 벼를 가공해서 얻는 곡식입니다. 즉, 벼를 재배하여 얻는 먹거리입니다. 벼 재배 방법은 기계화로 많이 편리해지고 간단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전 전통방식은 자연친화적으로 농부의 손길로 지었습니다. 전통 방식의 벼 재배 과정을 다음과 같이 알아보기로 합니다.

1. 객토하기와 거름주기

지난 해 추수가 끝난 겨울 들판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객토와 퇴비 주기입니다. 객토란, 토질을 높이기 위해 다른 곳에서 흙을 퍼다가 붓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해 물꼬를 통해 유실된 흙을 보충해주면서 한 해 농사로 산성화하거나 약해진 땅 힘을 새 흙으로 보강해주는 것입니다. 거름으로는 산에서 떡갈나무 잎을 꺾어다 넣어주는데 논갈이 전에 해주어야 합니다.

2. 볍씨와 못자리 준비

볍씨는 모내기 40일쯤 전에 소금물에 담가 잘 여문 알곡만 골라낸 후 따뜻하게 보온이 되는 곳에 두어 싹을 틔웁니다. 볍씨에 싹을 틔운 다음에는 못자리에 뿌려서 모를 키웁니다. 이 때, 못자리가 따뜻하게 보온이 되게끔 온도를 잘 조절하며 물을 대주어야 건강한 모를 길러낼 수 있습니다.

3. 논갈이

논갈이는 5월 초순, 모내기 전에 합니다. 논을 갈 때 씨레와 나래로 높고 깊은 곳이 없도록 최대한 땅을 잘 골라놓아야 모가 뿌리를 잘 내리고 물 관리하기도 쉽습니다. 이 때 씨레질을 하고 바로 모를 심으면 모가 땅 속 깊이 빨려 들어가 생육에 좋지 않으므로 모내기 2~3일 전에 씨레질을 끝내서 흙이 아래로 가라앉아 묵처럼 되었을 때 심습니다.

4. 모내기

볍씨를 못자리에 뿌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모가 논에 옮겨심기 알맞을 만큼 자라게 됩니다. 모를 논에 옮겨 심는 것을 가리켜 ‘모를 낸다(이앙)’고 말하는데, 모내기는 대체로 소만 전후, 즉 양력 5월 21일경부터 시작해서 6월 6일 망종 무렵에는 끝내야 합니다. 늦어지게 되면 먼저 심은 모와 나중 심은 모가 자라는 정도가 표나기 때문에 농부들에게 모내기 시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모를 낼 때는 묘판에 있는 논으로 옮기는 과정을 거치는데, 모를 뽑아 다발로 묶는 것을 ‘모를 찢다’고 표현합니다. 이 때 논에 물을 얇게 댄 후 모를 가지런히 맞추어서 2~3cm 깊이로 얇게 심어야 뿌리도 빨리 내리고, 잡초가 덜 생겨 포기 수가 늘어나므로 새로운 싹도 많이 불어나게 됩니다.

5. 물 조절하기

물을 조절하는 작업은 수확량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벼는 물에 오래 잠겨 있으면 썩거나 병이 생기고, 물의 온도가 너무 낮거나 높아도 벼의 상태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물의 양, 온도를 알맞은 상태로 유지하도록 물꼬를 반복해서 열었다가 닫았다 해주어야 합니다.

6. 피사리와 약주기

독새풀이나, 방동사니, 여뀌, 피 등은 벼가 자라는데 있어서 영양분을 빼앗는 잡초입니다. 피를 비롯해서 논에 난 풀을 뽑는 일을 ‘피사리’라고 하는데, 피사리를 하지 않으면 가을에 벼 수확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 씨가 고스란히 논으로 떨어져 이듬해에는 완전히 잡초 밭이 되어버립니다.

모내기를 하고 나서 가을까지 세 번의 피사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 피사리를 마치면 때맞추어 농약도 뿌려줍니다. 논에 가두어 놓은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여러 병해충이 극성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7. 물 빼기

8월 중순경이면 벼에 이삭이 패는데 이것을 ‘출수’라고 합니다. 출수 후 30 ~ 40일 후가 되면 논에 있는 물을 완전히 빼주어야 벼 뿌리 부근에 남아있는 양분을 벼가 잘 흡수하여 적절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8. 벼 베기

한참 벼꽃이 피었다가 지면 이삭이 여물면서 추수를 하게 되는데, 벼 베기는 벼 알이 90% 익었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논바닥을 바짝 말린 다음 벼를 베기 시작합니다. 벼를 베는 뒤에 낱알을 떨어내는 과정을 ‘탈곡’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탈곡이 끝나면 한 해의 벼농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과정	관련 농사 속담
객토하기와 거름주기	○ 쇠똥 세 바가지가 쌀 세 가마 ○ 갈풀 한 짐 쌀 한 짐
볍씨와 못자리 준비	○ 볍씨 선택은 만며느리 고르기와 같다 ○ 모 농사가 반 농사다
논갈이	○ 갈이 잘 하면 비료 한 번 더 준 것과 같다 ○ 씨레질 물은 형제간에도 안 나눈다
모내기	○ 쇠 말뚝은 깊게 박고 모는 얇게 심는다 ○ 상강 90일 두고 모 심어도 잡곡보다 낫다
물 조절하기	○ 물꼬 밑에 잠자야 농사를 제대로 짓는다 ○ 모낸 후 뒷물이 마르지 않아야 잘 먹는다
피사리와 약주기	○ 잡초를 1년 키우면 7년 동안 고생한다 ○ 못자리에 호랑이 새끼 친다
물 빼기	○ 물 탐 많은 사람 농사 잘된 것 못 보았다 ○ 논은 꿈에 말려도 한 번은 말려야 한다